

시계

명서영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거실 정면에서 바늘이 앞뒤로 오락가락
고장 난 저것은
중심을 찾는 것이 분명하다
오르지 한 방향으로만 치닫던
생각들을 수선하고 있다
덜컹덜컹 달려온 길이
삶의 궤적으로 서있는 숫자 앞에
잠시 자신을 내려놓는 녹슨 바늘
새털보다 가벼웠던 세월을 추억하며
비로소 활짝 편 손은 편안하다
하늘을 꿈꾸던 나뭇잎이 바람에 날아가듯
몸은 뜨거웠으나 헛바퀴를 돌던 사랑이나
쉬지 않고 일했으나 빈손 일 때나
돌아보면 그림기만 한
휘돌린 생
발명 나고서야 제자리에서 맴돌았던
시계視界가 살짝 열린다

외각지대 2

명서영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이끼가 그들을 좋아한다고 가볍게 말하지 마라
어둠이 두렵다, 그는
출구 찾다가 온통 그들을 뒤덮었다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햇볕을 받지 않고도 푸른 피가 돌고
있과 줄기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겨를도 없었겠는가?

어떤 것은 일 센티 크는데 백년이 걸린단다
무겁고 허기진 잎

그의 작은 키는 그들의 슬픔이다, 평생
음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도 있다

외각지대 3

명서영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

홀로 앉아 있는 노인
연못을 낚시질 한다
회사를 그만둔 후 날마다 왔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다고
목구멍에 낚싯바늘이 걸린 듯
타들어가는 그의 목소리
표정마저 바늘에 걸려 요지부동하다
시간을 엮고 있나, 노인과 물고기
바늘 없는 낚싯대만 서로 붙잡고 있나*
검버섯꽃 핀 손이 물고기의 낚싯대에 잡혀있다
마른 나뭇잎 하나 미끼가 되어 못에 빠진다
물결무늬 깊게 새겨진 노인의 얼굴에서
먹이 찾아 수심 깊은 곳까지 빠닥빠닥
밀물졌을 그의 삶을 상상한다
세상을 들여다보기엔 너무 큰 그의 눈
안에는 그러그렁 갇히지 않은 물이
어디론가 파도를 일으킬 것 같다
입질하듯 그가 긴 숨을 내뿜으면
동글동글 연못에 꽃이 핀다

*姜尙의 一子釣針에서 차용

까치 마을

명서영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헐렁했던 산의 품이 금세 짝 낀다
까치집을 가운데 두고
수컷인 듯 두 마리가 쫓고 쫓기고
암컷인 듯 두 마리 마주보며 우짚는다
숲의 내장까지 들여다보며 읽던 바람도
찔끔 눈 한번 감아버리겠다는 심사
나무 뒤로 숨고
바람 한 점 없는 팽팽한 숲은
한쪽 귀통이가 찢어지고 있다
작년 초 산자락에 들어선 아파트에
늪여 채인 산
한 나무에 까치집을 여럿, 겹겹이 들고 크게 흔들린다
나무들 점점 키를 높이는
바람이 숨차게 넘어간 능선 쪽으로
어린 까치의 눈들이 총총 박혀있다

거문고 소리

명서영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나는 깊은 산중의 기도다
끝내 완성시키지 못한 채
내다버려진 목조부처의 곡이다
싸개를 풀어헤친 뿌리와 이파리의
오랜 울음이다, 노래다
세상이 나를 반 토막 내고
내 몸짓에 박수 보내지만
골방 한쪽 귀퉁이를 떠나
공명으로 하늘을 두드린다는 것을 모른다
내 소리의 근원은
심지 깊은 뿌리의 다짐이며
흔들려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려는
이파리의 정신이다
그 산의 푸른 기억들을 우려내어
미완성의 염불을 읊는다
한 옥타브를 낮춰 너를 끌어안는다
때로는 울음이 세상을 추스릴 것이다